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속도 내야”

李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규제 완화'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 “건축경기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



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를 넘겨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밝힌 입장보다 다소 차이가 있는 데다 재건축, 재개발 전면완화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진짜 잘못 전달됐다”며 긴급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사항은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 재건축·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면서 “8·21 재건축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필요 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밝힌 입장보다 다소 차이가 있는 데다 재건축, 재개발 전면완화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진짜 잘못 전달됐다”며 긴급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사항은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 재건축·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면서 “8·21 재건축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여론조사기관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90명이 좌석을 메운다.

청와대는 이번 토론회가 자칫 득보다 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라는 제목의 100분짜리 TV 생방송 토론회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패널은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으로 구분된다.

전문가 패널은 정치분야에 유창한 시사평론가, 경제분야에 엄밀한 경제평론가, 사회분야에 유익한 경향신문 기자가 나서고 일반 패널은

논리에 밀려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달 개각에서 자신이 임명했던 오타 세이치 농수상의 정치자금 처리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야당들이 입시국회에서 인책공세를 버리고 있는 등 후쿠다 정권의 앞날에 험로만이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발족하게 될 후임 내각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중의 원 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인물로는 아소 다로(67) 간사장을 들 수 있다. 지난해 후쿠다 총리와 끝까지 겨뤄 낙선했으나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아 각 언론사의 총리감 조사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여론 내에서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드러내놓고 후쿠다 총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가 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후쿠다 총리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후쿠다 총리가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내각은 지난해 종합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선거를 의식한 즉효약으로 2조엔의 감세 조치를 처방하는 등 당초 표방했던 개혁노선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입시국회 소집 시기도 공명당의

친-반정부 시위대 충돌...泰 비상사태 선포

방곡, 1명 사망 40여명 부상...軍 병력 400여명 배치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는 2일(이하 현지시간) 친-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인 방콕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태국 현지 라디오와 TV방송은 사막 총리가 친-반정부 시위대의 충돌로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하자 질서 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투입한 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비상사태 하에서는 5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아누폰 파오진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서유지의 전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포고령에 따라 아누폰은 특정지역에 대해 시민의 출입을 막을 수 있고 특정지역의 시민을 해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막 총리는 비상사태 선포 후 기자들에게 “어젯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 수천명이 총리실이 들어있는 방곡 중심가의 정부청사를 8일째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새벽 2시 수백명의 친정부 시위대가 몰려와 청사 주변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3명은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민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군은 방콕과 근



2일(이하 현지시간) 태국 수도 방콕에서 친-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해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친-반정부 시위대가 충돌,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군은 방콕과 근방으로 무장한 400여명의 병력을 긴급 투입해 정부청사 주변에 배치했다.

방으로 무장한 400여명의 병력을 정부청사 주변에 배치,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에 나섰다.

군은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PAD가 주도하

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해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새라 페일린 부통령후보의 고교생 딸이 임신중이라는 뉴스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다.

페일린 부통령후보의 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올해 17세인 큰 딸 브리스톨이 현재 임신 5개월째이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아빠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매케인 후보 진영은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언론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케인 진영은 페일린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이미 큰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페일린 후보가 1주일전 이 사실을 매케인측에 공개했을 때 “가족의 프라이버시일 뿐 부통령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론에 밝

혔다.

그러나 공화당 전당 행사장 주변에서는 하루종일 페일린의 고교생 딸의 임신에 관한 뉴스가 계속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또 페일린이 알래스카 경합구장에 입력을 가해 여동생의 전남편을 경찰에서 해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스캔들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극히 사소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또 페일린의 남편 토드가 24년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매케인 진영은 수십년 전의 사소한 사건을 끄집 내 흠집 내기에 불과한 뉴스라며 페일린 주변에서 나오는 스캔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처럼 사소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일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새라 페일린 부통령후보의 고교생 딸이 임신중이라는 뉴스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다.

페일린 부통령후보의 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올해 17세인 큰 딸 브리스톨이 현재 임신 5개월째이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아빠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매케인 후보 진영은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언론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케인 진영은 페일린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이미 큰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페일린 후보가 1주일전 이 사실을 매케인측에 공개했을 때 “가족의 프라이버시일 뿐 부통령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론에 밝

“허리케인 또 온다” 美 공포 가중

한나·아이크 접근 중...구스타브 상륙, 세력 약해져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부해안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됐지만 새로운 허리케인 ‘한나’와 열대성 폭풍 ‘아이크’가 세력을 키우며 카리브해와 미 본토로 접근하고 있어 역대 허리케인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한나가 1일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 현재(한국시간 2일 오전 6시) 풍속 120km의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채 바하마 군도에서 시속 5km의 느린 속도로 세력을 키워가면서 미국 남동해안을 향해 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측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한나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대서양해안) 지역까지 어디든 강타할 수 있다”며 미 남동부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나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구

스타브로 인해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아이티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를 뿌리고 있으며, 미 본토에 상륙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와중에 열대성 폭풍인 아이크가 이날 아프리카 대륙과 카리브해 사이에서 형성된 뒤 급속히 위력을 더해가면서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허리케인센터측은 5시 현재 아이크가 카리브해 동부 리워드제도에서 동쪽으로 2천250km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26km의 빠른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크는 최대풍속이 이미 85km에 이르렀으며 36시간내에 최소풍속 119km 이상인 허리케인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상륙한 뒤 루이지애나주 도시로 향하면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세력이 약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라는 제목의 100분짜리 TV 생방송 토론회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패널은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으로 구분된다.

전문가 패널은 정치분야에 유창한 시사평론가, 경제분야에 엄밀한 경제평론가, 사회분야에 유익한 경향신문 기자가 나서고 일반 패널은

논리에 밀려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달 개각에서 자신이 임명했던 오타 세이치 농수상의 정치자금 처리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야당들이 입시국회에서 인책공세를 버리고 있는 등 후쿠다 정권의 앞날에 험로만

이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발족하게 될 후임 내각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중의 원 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인물로는 아소 다로(67) 간사장을 들 수 있다. 지난해 후쿠다 총리와 끝까지 겨뤄 낙선했으나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아 각 언론사의 총리감 조사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여론 내에서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드러내놓고 후쿠다 총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가 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후쿠다 총리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후쿠다 총리가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내각은 지난해 종합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선거를 의식한 즉효약으로 2조엔의 감세 조치를 처방하는 등 당초 표방했던 개혁노선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입시국회 소집 시기도 공명당의

낮은 지지율에 총선 심리적 압박

日 후쿠다 총리 전격 사퇴...후임엔 아소 다로 유력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갑작스런 사퇴의 표면은 중의원 해산 문제 등이 걸린 가을 입시국회 소집을 10여일 앞두고 지지율 추락으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홋카이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지난달 1일 단행한 대폭적인 개각 조치에 불구하고 지지율이 기대했던 만큼 오르지 않아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 자신의 손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지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 내에서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드러내놓고 후쿠다 총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가 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후쿠다 총리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후쿠다 총리가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내각은 지난해 종합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선거를 의식한 즉효약으로 2조엔의 감세 조치를 처방하는 등 당초 표방했던 개혁노선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입시국회 소집 시기도 공명당의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Advertisement for 'Daehanminok' (대한민국) traditional food products. The image shows various food items like rice, soy sauce, and other traditional Korean products. The text highlights 'Daehanminok' as a brand of traditional Korean food products.